

문화재 관리에 국민적 관심 모아져야



인정환 | (주)삼풍엔지니어링 회장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며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제고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관리는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문화 인프라 구축에 중심축을 이루는 요소이다.

문화재란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조상이 남긴 문화 유산으로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 관리란 유형의 문화재를 본래의 장소, 혹은 완비된 시설에 원형 그대로 그 가치를 유지 보수하며, 무형인 전통적인 기술과 예능을 발굴 보존 전승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낸 것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자연 또는 자연물이 객체가 되어 이루어진 문화의 산물인 것이다. 각 나라와 민족의 전통가치에 따라 각기 독특한 문화를 가꾸고 이어 오면서, 민족정서와 가치관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는 역사의 산물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다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귀한 문화재는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1962년 1월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했다. 문화재 보호법 제1조에 보면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통 문화의 산물인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하고 있다. 헌법 외에도 문화재를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 전통건조물 보존법 등의 여러 법률 조항이 있으며, 문화재청과 문화재 위원회를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전반적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조항과 관리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국민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재 보수 복원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내가 느낀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성의 없는 관리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들은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아 가슴 아팠던 기억이 종종 있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문화재 보호 복원 분야이다.

문화재 보호 관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인류의 문화와 사회적 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화재의 보호 관리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도덕적 의무로 여겨져야 한다.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며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바탕의식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세계적으로 역사성을 지닌 문화 민족임을 자부하고 있다. 문화재를 아끼자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하는 만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봐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왜 문화재를 아껴야 하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문화재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해야 하고, 문화재의 보수 복원 보존방법과 조사발굴 및 자료운영 방법에 대한 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뿌리에 대한 탐구 위에 첨단 지식과 기술이 접목되어야 진정한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 중점을 두어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옛것을 통해 현대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장인정신으로 문화재의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옛것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민족 문화재의 보존 활용은 국가의 의무로만 맡길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향유하는 능동적인 권리자로서 자각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발전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미 양성되어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인적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적인 신분 보장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약력

문화재 관리국 근무
 독립기념관 건설국장 역임
 서울시 전통건축 심의위원장 역임
 문화재 보존기술진흥협회 부회장(현)

